

전남 문화 콘텐츠 몽골 국민 매료시켰다

2025 한국주간 'Korea Week'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5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 개막식에서 예향 전남의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해 현지인들을 매료시키고, 유망 중소기업과 함께 세일즈 외교도 펼쳤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한국주간행사는 주한몽골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최하는 대표적 한-몽 문화교류 행사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 주관 지자체로 참여해 7일까지 이틀간 몽골 국민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소개하고 두 나라의 우호 증진에 나선다.

행사 개막식에서는 주한몽골대한민국대사의 개회사, 김영록 지사의 축사가 이어지며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전남도는 전남도립국악단의 국악 공연, 빛고를 댄스, 타악그룹 얼쑤의 난타 공연 등을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무대로 현지 관람객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천연염색 체험, 부채 만들기, 민화 우드시어터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전통 공예 체험 부스는 몽골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끊이지 않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현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두 나라의 문화적 공감대를



몽골을 방문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현지 시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5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 개막식에서 주요 내·외빈들과 한국 음식인 대형 비빔밥을 비비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참석...도립국악단·빛고를 '댄서스' 인기 유망 중소기업 15곳과 현지 바이어 대상 세일즈 외교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의 유망 중소기업 15개 사도 참여했다. 전통 음료, 수산가공식품, 유기농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을 현지 바이어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선보이고, 몽골 현지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

는 등 제품 홍보와 수출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참여 중소기업은 ㈜골든힐(김·미역·떡), 대륙식품㈜(조미김), 완도물산(김제품), 영급어농장(등걸 과일김), 녹차원(녹차 음료), 서광식품(유자청), 보향다원(차류), ㈜메사코사(스킨케어화장

품), ㈜마린테크(콜라겐 화장품), 이노플렉스(아이크림), 김시월(김), 나눔바이오(화장품), 한국제다(녹차), ㈜푸른정식품(김·미역), ㈜푸드파라(떡·빵)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전남의 우수한 콘텐츠와 경제적 역량을 함께 알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제행사 참여를 통해 전남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국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몽골 울란바토르시

통상·농업·문화·관광 협력 '새지평'

"두 지역 실질적 성과 출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현지시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어 두 지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몽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지사는 이날 울란바토르시청에서 아마르투브신 암갈란바타르 부시장 등 두 지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통상·산업, 농업·축산, 교육·청년교류,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에 나선다.

관광 분야는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은 몽골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바다와 섬, 갯벌 관광자원을 앞세워 현지 여행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

객 유치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또 두 지역 모두 기후위기는 공통 과제에 직면한 만큼,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몽골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남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와 산업 협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의의적 합의가 아니라 전남과 울란바토르가 함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다"며 "앞으로 문화와 관광, 경제와 환경은 아우르는 교류를 통해 두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 전체 인구 35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산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앞세워 현지 여행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몽골을 방문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울란바토르시청에서 아마르투브신 암갈란바타르 울란바토르부시장과 '전남도-울란바토르시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다.

광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유아·초등 학부모 대상 시행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제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국가제도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

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광주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경기 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왔으며, 이제명 정부는 이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정. 지난 8월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시켰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유

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해 가족친화 경영의 귀감이 되고 있는 '광온비즈니스' 현장을 찾아 10시 출근제 참여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광온비즈니스는 지난해부터 각각 7명의 초등학부모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10시 출근제를 이용하고 있다.

참여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아침시간을 보낼 수 있어 출근길이 한결 여유로워졌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며 "광주시 10시 출근제를 통해 자녀 돌봄 준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어 삶의 균형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李대통령, 여야대표 오찬...장동혁 대표와 회동

"의제없어...협치·소통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한다.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오찬 참석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 대표 외에 민주당에서 정 대표 대변인, 비서실장, 국민의 힘에서 장 대표 대변인과 비서실장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이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되며, 오찬 회동 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

웅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다.

특히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장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3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밤미 이후 서울공공청으로 귀국하자마자 이상호 수석을 통해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협치 강화를 위해 이번 모임을 추진해왔다"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반발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불만이나 이견은 없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대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전남도·해남군 지원 준비위 발족

전남도는 10일 예정된 세계적 여자골프 대회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해남군과 함께 준비위원회를 지난 6일 발족, 전남지역 기관·단체·기업과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대회는 전 세계 골프 팬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관광·문화·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회 준비위원회는 경기장 인프라 정비, 교통·숙박·안전 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LPGA, BMW코리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관기관, 시·군과 함께하는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해남=정승수 기자 sjs8239@

고객과 함께 하는 Y-MART

일정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4

확장이전 OPEN

☎ 운영시간 : 07:00~23:00(365일 연중무휴)
☎ 대표전화 : 010-3086-5302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4와이식자재마트 본점